

##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조호연\*\*

1. 머리말
2. 제정 러시아 시기와 2월 혁명 직후의 기록관리
3. 10월 혁명과 기록 관련 법령의 제정
4. 기록관리제도의 정비
5. 권력의 강화에 따른 기록관리제도의 변화
6. 맺음말

※ 주제어: 국가기록фон드, 레닌, 스탈린, 10월혁명, 법령 “기록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집중화에 관하여”,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

### 1. 머리말

이제 본격적으로 기록물관리제도를 정비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소련에서의 기록관리의 경험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소련 정부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창출 이후에

\* 본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번호 : KRF-2002-073-AM1013)의 결과임을 밝혀드립니다.

\*\* 경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

주요논저: 「러시아의 기록보존업무」, 『역사비평』 36호, 1997  
「전환기의 러시아 기록보존소」, 『기록보존』 9호, 1996

구현하고자 했던 일정한 프로그램을 갖고 출범한 정권이었다. 따라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기록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철저하고 빠른 속도로 제도적인 완비가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의 각종 기록물관리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4억 6천만 문건 이상의 기록물의 양이 말해주고 있듯이,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10월 혁명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마련된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유럽 여러 나라들과 중국과 북한 등의 사회주의 정권의 기록물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의 성립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관리 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 글에서 다음 네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 혁명을 전후한 시기의 기록물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둘째로, 볼셰비키 정권 초기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어떻게 정비되었는가? 셋째로, 기록관련 법령이 지닌 의미와 그 결과는 무엇인가? 넷째로,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20년대 이후에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가?

## 2. 제정 러시아 시기와 2월 혁명 직후의 기록관리

### 1) 제정 러시아 시기의 기록관리

19세기 말로부터 20세기 초의 러시아는 정치 및 사회구조만이 아니라,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그야말로 격변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다. 아직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봉건적 성격의 사회구조가 1861년의 농노해방으로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와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관료기구

는 급속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러시아도 당시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러시아 역사에서 기록물 관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모스크바국<sup>1)</sup> 시기이지만, 체계적인 기록관리라는 과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시점은 19세기에 들어와서였다. 제정 러시아 시기에는 기록물이 부분적으로 보관되기는 했지만,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던 각 부서별로 무질서하게 관리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와 학자들도 기록물의 보존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해서 점차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1894년에 차르가 되었던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의 기록 업무의 현황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1911년에 역사학회에 지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러시아의 행정단위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주(州 : губерния)의 기록물 위원회와 각종 기록물 담당자들의 대회가 1914년 5월에 개최되기에 이르렀으나, 그해 7월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기록관리제도의 정비작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 2) 2월 혁명 직후의 기록관리

기록관리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다시금 환기된 때는 1917년에 발발한 2월 혁명 직후였다. 프랑스 혁명기(1789~1799)의 경우에도 확인될 수 있듯이, 혁명적 상황이 도래했을 때 기록물이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1 모스크바국은 13세기 후반에 블라디미르 공국으로부터 분리되어 15세기 후반인 이반 3세 시대에 몽골의 지배를 벗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체 러시아인들의 구심점으로 확고한 지위를 획득한 국가이다. 이 국가는 더 나아가 포트르 1세 시대인 18세기 초에는 러시아제국으로 불리게 되었다. 러시아에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국가 기관이 처음 설치된 예는 모스크바국의 이반 뇌제(재위 1533~1584)의 차르 기록관이라 할 수 있다.

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자연발생적인 붕괴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차르 권력이 붕괴된 상황이었으므로, 2월 혁명 직후에 러시아에서 기록물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빠져들게 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록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위협에 처해질 수 있었다.

우선 일반 대중은 구체제(舊體制)에 대한 적대감을 기록물에 대한 파괴행위를 통하여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군의 사람들은 기록물을 통하여 구정권에서 행한 일이 폭로됨으로써 정치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여 적극적으로 기록물 파괴에 나서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은 특히 경찰 및 헌병 같은 보안부서의 기록물의 경우에 해당되었다. 실제로 2월 혁명 직후에 러시아의 각종 보안부서 건물에서는 서류봉치를 소각하거나, 아무런 행정적인 절차 없이 자료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일이 목격되었다.<sup>2)</sup> 뿐만 아니라, 혁명 직후에는 정부 조직들이 빈번하게 폐지되거나 창립되었기 때문에 기록물들이 이리저리 옮겨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실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었다.

결과적으로 보건데, 소련의 기록물은 1917년의 2월 혁명과 이런 위기상황을 이력저력 극복하고 새로운 기록관리제도를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견주어 보더라도 뒤지지 않은 정도로 잘 보존되게 되었다.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기 이전에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사에서는 이러한 기록관리의 대혼란사태를 중단시킨 공을 주로 레닌을 중심으로 한 소련 정권에게로 돌린 바 있었다.<sup>3)</sup> 그렇지만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되고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인 편향성이 사라지자, 소련 초기의 기록물관리제도의 확립과정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제기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2월 혁명 직후에 제

2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М.: Россия с к. гос. гуманит. ун-т, 1994), p.11.

3 В. В. Максаков, История и организац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1917~1945 гг.(М. : Наука, 1969), p. 29.

정 러시아의 전통에 따라 활약하던 학자들과 기록관련업무 종사자들의 기록물보존 노력이 소련 시기에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월 혁명 직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러시아의 기록관리제도사에서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조직인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Сюз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ных деятелей)의 활약상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sup>4)</sup>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탄생 배경은 다음과 같았다. 이미 2월 혁명 직후에 일군의 지식인들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런 모임 중의 한 장소는 수도인 페트로그라드<sup>5)</sup>에 있는 고리키(А. М. Горький)의 아파트였다. 1917년 3월 4일에 처음 개최된 이 모임에는 베누아(А. Н. Бенуа), 빌리빈(И.

4 이 단체에 대해서는 소련 정권 초기에 이 조직에서 활동하였거나 그와 가까운 역사가들과 아키비스트들, 즉 프레스냐코프(А. Е. Пресняков), 니콜라예프(А. С. Николаев), 골리친(Н. В. Голицын) 등이 언급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소련의 기록학계에서는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을 주로 계급적인 성격으로만 파악하였다. 그러다가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인 1990년대에 기록학 이론가이자 역사가인 아프토크라토프(В. Н. Автократов)는 2월 혁명 직후의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활동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는 1993년에 발표된 유고 논문인 “러시아의 기록 업무의 중앙집중화(1917~1918)로부터”와 “러시아 기록업무 조직의 역사로부터”에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2월 혁명 시기의 기록 업무에서 가장 명확하고 조직적인 현상)의 진정한 역사를 규명하지 않고는 이후의 러시아의 기록관리의 역사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었다. В. Н. Автократов, “Из истори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1917~1918 гг.),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no. 3(1993), С. 9-34; В. Н. Автократов, “Из истории и орган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1917~1918 гг.),”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no. 4(1993), С. 3-27.

5 1703년에 건설되기 시작한 이 도시의 첫 번째 명칭은 상트 페테르부르크였는데, 이 명칭이 독일식이라고 하여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러시아식 발음인 페트로그라드로 바뀌었다. 그러나 1924년에 레닌이 사망한 다음에 레닌그라드라고 개명하였다가, 1991년 12월에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원래의 이름인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

Я. Билибин), 샬라핀(Ф. И. Шаляпин), 마코프스키(С. К. Маковский) 등 페트로그라드의 저명한 지식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제정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 국가두마를 중심으로 성립된 임시정부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방문하여, 기념물, 건물, 옛 물건, 서류들을 보존할 것 등을 호소하였다. 이 호소문은 1917년 3월 8일에 『페트로그라드 노동자 대표들의 소비에트 이즈베스치야』에서 대량으로 인쇄되었는데, 이것은 과거의 고문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집단 행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sup>6)</sup>

이들 고리키 그룹의 지식인들은 곧이어 3월 18일에도 다른 지식인들을 초청하여 당시의 혼란한 상황에서 기록물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여기서 해군성 기록관의 책임자였던 레베데프(А. И. Лебедев)는 “어려운 시기의 우연한 사건들”로부터 기록물 자료들을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폐지된 기관들과 대저택의 기록관의 기록물, 그리고 독일군이 접근해오에 따라 전선지역에 있는 기록물의 구원을 위하여 구체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이 모임의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Союз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ных деятелей)을 결성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조직의 정관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

6 소련 시대에는 이 호소문이 10월 혁명 이후에 처음 등장하였다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그 원인은 모든 부정적인 현상을 임시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긍정적인 현상을 소련 권력 기관에 돌리려는 데 있었다. 사실, 기록 자료를 구하는 데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들은 초기부터 곧 해체된 “고리키 위원회”만이 아니라, 역사학의 일급 대표자들과 전문 아키비스트들이었다. 1920년대 중반 무렵이면 2월 사건에 대해서는 점차로 적게 언급되고, 1918년 6월 1일 “기록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집중화에 관하여” 법령이 채택된 이후에 시작된 기록관 건설 시기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12-15.

에 이르렀다. 특별 위원회에는 원로원 기록관의 감독관인 블리노프(И. А. Блинов), 국립 및 페트로그라드의 외무성의 주요 기록관의 관장인 골리친 공(Н. В. Голицын), 해군성 기록관의 책임자인 레베데프(А. И. Лебедев), 인민계몽부 기록관의 책임자인 니콜라예프(А. С. Николаев), 저명한 역사가인 플라토노프(С. Ф. Платонов) 등이 포함되었다. 이런 작업 끝에 드디어 1917년 4월 8일에 개최된 회의에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협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의장에는 라포-다닐레프스키(А. С. Лапо-Данилевский)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선출되었고, 8명의 회원과 3명의 후보회원이 선출되었다.<sup>7)</sup> 이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아주 다양하여, 보수주의자-군주주의자들로부터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을 포괄하였다.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은 결성된 때로부터 1918년 6월 1일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기록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령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혁명적인 혼란기에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특별 위원회에서 준비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정관은 회원 총회에서 승인되고, 1917년 6월 16일에 임시정부 인민교육부 장관인 마누일로프(А. А. Мануйлов)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이 문서에 기술된 바에 따르면, 이 단체의 목적은 “공통된 작업 원칙과 방법으로 기록종사자들을 통합, 러시아에서 기록 업무를 올바른 상황에 놓도록 배려”하고, “기록종사자들의 전문적인 이해의 보호, 서류 및 온갖 기록 자료들의 보호, 기록학과 기록물 기술에 관한 연구 출판, 기록관의 건립과 관리에 관한 지침 및 동맹의 목적에 부합되는 글 출판” 등이었다. 정관에서 제시되었듯이, 라포-다닐레프스키와 그의 동료들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빨리 법적인 기

---

7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18-19.

반 위에서 관청의 무질서를 제거하고, 전국가적인 규모로 정부 기관의 형태로 “러시아의 기록관을 관리하는 어떤 중앙기구를 정점으로 한 중앙집중화된 기록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sup>8)</sup>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출발을 보면, 그것은 순수한 민간인 중심의 단체로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맹의 재정을 위하여, 회원은 1년에 5루블 하는 회비를 납부해야 했고, 종신 회원인 경우의 회비는 100루블이었다. 또한 동맹을 위한 기부금 및 동맹 출간물의 판매수입도 동맹의 운영비로 할애되었다.

2월 혁명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지 못한 임시정부로서는 독자적으로 기록관리체계를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활동을 시작한 민간 단체인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래서 1917년 6월 22일 인민교육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 협의회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자료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집을 위한” 특별 조직의 창설에 관한 법령의 시안을 만들도록 공식적으로 위임하였다. 이런 부탁은 받은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부의장인 골리친은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여 법령 시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에는 폐지되거나 근본적으로 재편된 기관과 부서의 기록들이 그대로 보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대의 러시아 기록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프레스냐코프(A. E. Пресняков)는 1918년 여름에 발표된 “기록 업무의 개혁”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 시기의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 동맹은 귀중 기록물의 보호만이 아니라, 폭넓은 조직적 과제들을 담당하였다.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러시아에서 기록 업

---

8 *Ibid.*, C. 26.

무의 올바른 건설을 주도할 독자적이고 전권을 지닌 기구, 즉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의미를 지닌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중략>… 동맹은 자신의 기본 과제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러시아 전체에 걸친 기록종사자들의 대회 소집, 지방(주 단위의) 기록물 관리기관에 관한 합리적인 법안의 제정, 모든 기록 업무를 관리하는 전권 기구로서의 기록물 중앙위원회의 소집 등을 계획하였다.<sup>9)</sup>

이런 식으로 하여,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는 과거에 소련의 공식적인 역사학에서 주장되었듯이 혁명 직후에 레닌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그 토대가 놓여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필요성이 점차로 인식되어오다가 1917년 2월 혁명 이후에 사회적 혼란 기간 동안에 민간인 기록전문가들로 구성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이 제정 러시아의 기록물관리의 전통을 소련 시기로 연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 3. 10월 혁명과 기록 관련 법령의 제정

임시정부가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도움을 받아 기록관리제도의 기반을 채 닦기도 전에 러시아에서는 10월 혁명이 발생하여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10월 혁명 직후에는 러시아 국내에서든지 외국에서든지 볼셰비키 정권이 오랫동안 존속되리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실상 1917년 11월에 실시된 제헌의회 선거에서 볼셰비키는 농민에 기반을 둔 사회혁명당에 뒤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그렇지만 볼셰비키 정부는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 등 대도시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1918년 1월에 제헌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1당 독재를 강화해나가게 되었다.

---

9 *Ibid.*, C. 33.

기록물 관리에 관련하여 말하자면, 볼셰비키도 기록물 관리에 대해 무심치는 않았고, 오히려 권력을 장악하기 오래 전부터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나중에 혁명세력 및 정치 관련 기록물을 주로 소장하게 된 중앙당사기록관의 기록물은 사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러시아사회민주당의 망명세력의 여러 조직 및 기관의 자료 모음집에서 출발하였다. 그러한 조직들로는 가령, “노동해방”그룹, “러시아사회민주당”, “이스크라” 및 “자랴” 편집진 등이 있었다. 특히 1903년 8월에 개최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РСДРП)의 제2차 전당대회 이후에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조직의 정기적인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기록물도 다량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1903년부터 1917년까지 제네바, 파리, 크라코프, 베른,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는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중앙기관과 중앙위원회(망명 당 그룹의 중앙부를 구성했던), 볼셰비키의 지도부, 볼셰비키의 비합법 기관지의 편집부의 문서들, 부분적으로는 멘셰비키의 서류들과 유대인들의 반정부 단체였던 분트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들이 수집되고 보관되었다.

뿐만 아니라 볼셰비키는 망명지에서도 기록물 관리기구를 창설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들 기구들은 혁명세력의 문헌만이 아니라 러시아의 정치사와 관련된 필사본 및 인쇄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도 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게르첸(А. И. Герцен), 라브로프(П. Л. Лавров), 그리고 유럽에서 유명해진 다른 러시아 혁명운동 지도자들의 전통을 발전시켜 역사 자료들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수집하였다.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첫 번째 공식적인 기록 기구이자 도서관은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РСДРП)의 도서관 및 기록관이었다. 이것은 볼셰비키 그룹의 주도로 제네바에서 1904년 1월에 설치되었고,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ЦК РСДРП)의 국외부서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이 기관은 당시

에 유명한 러시아의 종교-미학 분과 흐름의 연구자로서 역사-혁명 자료의 수집에 열심이었던 본취-브루예비취(В. Д. Бонч-Бруевич)가 담당하였다.<sup>10)</sup> 기록물 관리에 대한 볼셰비키의 이러한 적극적인 입장은 러시아의 일부 다른 혁명가들의 태도와 비교할 때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가령 아나키스트 지도자였던 바쿠닌(М. А. Бакунин)같은 사람은 혁명가들이 과거를 완전히 폐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전 체제의 모든 역사 기록물을 폐기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다.<sup>11)</sup>

10월 혁명 직후에 러시아의 기록물이 당한 형편은 2월 혁명 직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플라토노프의 설명에 따르면, “기록 업무에서 10월 정변은 완전한 혼란상태로 이어졌다.” 더구나 2월 혁명 때에는 차르 정부에 대한 반감이 기록물 파괴로 이어졌다고 한다면, 10월 혁명 이후에는 이에 덧붙여 계급적인 적대감도 기록물의 파괴에 한몫 하였다. 말하자면, 2월 혁명 이후에 “압제자들의 서류”에 대한 대중의 자연발생적인 혐오감의 등장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이제는 그 혐오감이 계급적인 근거를 획득하였던 것이다.<sup>12)</sup> 더구나 기록물의 형편은 10월 혁명 직후에 시작된 공무원들의 총파업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무렵이면 볼셰비키 정부도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기록관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기록관 고위 위원들을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마르킨(Н. Г. Маркин)과 잘킨트(И. А. Залкид) 같은 인물들이 그런 기록물 관리 위원들이었는데, 문제는 이들

10 Крат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М.: Благовест, 1993),С. III.

11 P. A. Grimsted,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vol. 45, no. 4(Fall 1982), p. 434.

12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37.

이 기록물에 대해 극히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었다.<sup>13)</sup>

그렇기는 하지만 10월 혁명이 러시아의 기록관리에서 상황변화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은 사실이었다. 10월 혁명은 대부분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록 행정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를 계기로 고도로 중앙통제적인 기록물 관리 체제, 그리고 국가에 의한 철저한 기록물 관리, 보존, 이용 원칙이 10월 혁명 이후에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는 이데올로기로서 역사 이론에 깊이 관여되어 있고, 역사 해석의 필연성과 불가분 결합되어 있었다. 따라서 기록물 통제에 대한 철학적 정당성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기록물 관리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무렵까지 소련의 기록물 관리의 방향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 시기에 러시아의 기록관리 전통과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의 성립 사이에는 연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이었다.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 회원들은 1918년 1월 28일에 임시정부 붕괴 이후로는 첫 번째 전체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은 라포-다닐레프스키의 제안에 따라 “기록관의 와해, 강탈, 그 장소의 장악 등으로부터 기록관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sup>14)</sup>

이제 볼셰비키 정부는 기록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18년 3월에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협력을 구하기로 하였다. 회동 제의를 받은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라포-다닐레프스키 의장은 원래 소련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당국과 만나기 전에 러시아 기록종사자동맹의 입장을 일정 부분 정리하였다. 여기서 라포-다닐레

---

13 *Ibid.*, p. 38.

14 *Ibid.*, C. 41.

프스키는 기록물 관리 업무의 전반적인 개혁과 당파성 배제 등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인 1918년 3월 27일에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협의회가 볼셰비키 정부측 대표들과 최초로 공식적인 회동을 하였다.<sup>15)</sup> 이 회동에서 정부측의 대표는 라자노프(Д. Б. Рязанов)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1918년 초에 페트로그라드가 독일군에 함락될 위기를 당했을 때 기록물의 철수를 책임진 인물이기도 하였다.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 협의회는 라자노프의 견해를 청취한 다음에 소비에트 형태로 된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구의 건설에 관한 문제의 논의로 넘어가기로 결정하였다. 라자노프와의 협의에 따라, 이 기구의 구성에는 러시아 학술원, 페트로그라드 대학, 공공 도서관, 고문헌 위원회, 자유를 위한 전사기념관(戰士紀念館), 교육인민위원부의 대표와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 협의회에서 활동하던 5명<sup>16)</sup>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sup>17)</sup>

볼셰비키 정부 대표들과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측 대표들은 1918년 4월 2일에 개최된 최초의 회의에서 “기록관리중앙위원회”(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управлению архивами, 약칭은 ЦКУА)라는 기구를 구성하기로 하고, 기록관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기록관리중앙위원회는 1918년 4월과 5월에 걸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쉬지 않고 회의를 개최하였고, 기록업무주요관리부 및 기록관리 지방조직에 대한 모든 안을 준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기록관 및 기록관리의 중앙집중화 안에 대한 격렬한 토의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기록관리중앙위원회가 구성된 1918년 4월부터 기록관리총국이 설치된 6월 8일에 이르기까지 기록관리중앙위원회의 활동 방향은 두 가지

15 *Ibid.*, С. 47.

16 그 다섯 명은 라포-다닐레프스키, 골리친, 레베데프, 블리노프, 그리고 즈드라보미슬로프였다.

17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49.

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이 위원회는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던 시기에 제시된 기록물 개혁의 모든 학술적인 사상과 이론적인 원칙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이 위원회는 위협적인 상황에 놓인 기록물을 찾아내어, 등록하고 보존하는 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일에는 프레스냐코프가 책임자로 있던 기록관리중앙위원회의 감독국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집행기구는 원질서의 원칙에 따라 원로원 등에서 임시 정부가 붕괴된 이후에 위기 상황에 처한 기록물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sup>18)</sup>

이런 작업을 통하여 결국 소련 초기의 기록물 관리의 대략적인 방향이 설정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아키비스트들은 제정 러시아 시대의 관료들의 도움을 받아 처음에는 일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유기적으로 생성된 개별적인 기록물 폰드를 복구해야 했다. 달리 말하여, 본질상 단일한 기록물 폰드를 복구하고자 할 때, 기록물의 출처별 근원에 적용되는 역사적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즉 주제별로 연관성을 가진 폰드들을 결합하는 단계에서는 논리적인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내용상 근접되거나 부합되는 자료들이 하나의 자료군으로 선별되어 묶여지게 되었다. 결국 이 두 가지 원칙이 결합되어 소련 초기에 기록업무의 근본적인 재조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사상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의 근간이 되는 “단일국가기록фон드”(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ЕГАФ) 개념이 정립되게 되었던 것이다.<sup>19)</sup>

18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55; 방일권, “러시아혁명과 아키비스트, 1917~1920,”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집』 (한국기록관리학회, 2003), 49쪽.

19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56.

또한 기록관리중앙위원회는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의 근간을 이루게 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착수하였다. 이 일은 “기록관과 도서관의 중앙 관리 조직, 그리고 러시아의 혁명운동사 기록관과 도서관의 창설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1918년 4월 26일에 소련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다. 이 회의에는 레닌을 비롯하여 스탈린과 치체린 등 당시 소련 정부의 실력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이 회의의 의사록은 두 종류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포티에바야(Л. А. Фотиевая)에 의하여, 다른 하나는 고르부노프(Н. П. Горбунов)에 의하여 기록되었다.<sup>20)</sup>

이 회의의 발표자는 당시에 기록관리기구 설치 문제를 주도하고 있던 라자노프, 그리고 라자노프를 이어 1920년대에 이 분야의 책임자로 활동했던 교육인민위원부의 부위원장인 포크로프스키 등이었는데, 이 회의에서는 이 두 사람의 견해차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첫 번째 논점은 기록물 관리기구의 소속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라자노프의 주장대로 교육인민위원부 아래에 두느냐, 아니면 포크로프스키의 주장대로 독자적인 부서로서의 권리를 보유한 채 전(全)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ВЦИК) 산하에 두느냐의 여부를 놓고 상충되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관해 결국 포크로프스키의 견해가 채택되었는데, 기록관 관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교육인민위원부로부터 20만 루블을 지원받게 되었고, 중앙위원회는 2주 내에 예산 지출 사항에 관하여 세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논점은 기록물 관리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상의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록물 관리기구가 교육인민위원부 산하에 들어가게 되었던 만큼, 교

---

20 С. О. Шмидт, Археография. Архивоведение. Памятниковедение(М.: Российск. гос. гумани. ун-т, 1997),С. 57.

육인민위원부의 수장인 루나차르스키에게 교육인민위원부의 대표자들, 기록관리 중앙위원회의 대표인 라자노프, 교육인민위원부가 임명한 전문가들, 기록물 중앙관리 조직의 세부안과 도서 업무의 재조직안 작성을 맡은 관련 부서들의 대표자들로 협의회를 소집하도록 위임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러시아의 혁명운동사 기록물과 도서관의 중앙관리기구는 구분되어 취급되기로 결정되었다.<sup>21)</sup>

우리는 1918년 4월 26일의 회의에서 레닌이 기록관리제도의 확립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인민위원회 회의는 속기록 형태로 남겨지지 않았고, 레닌의 논평, 제안, 답변이 의사록에 기록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대인들의 증언에 따르자면, 레닌은 분명하게 표현된 결정사항에 관해서만 정확한 기재를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6월 1일에 공포된 법령은 레닌이 편집에 참여한 저술의 목록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련 시기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자면, 레닌은 보존기록물의 운명과 과거의 보존기록물의 보존 및 그 안의 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적지 않은 관심을 기울였다. 레닌은 기록물관리기구를 위하여 면밀하게 세부 안을 준비해야하며, 특히 혁명전 정권의 전문가들 중에서 선발된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10월 혁명 직후에 권력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반대 세력과의 투쟁에 몰두하는 시점에서 기록 업무에 관한 문제를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에서 논의할 뿐만 아니라, 기록관리 필요에 재정을 할당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22)</sup>

국무회의격인 인민위원회 서기였던 본취-브루예비취(В. Д. Бонч-Бру

---

21 *Ibid.*, C. 57.

22 *Ibid.*, C. 58-59.

евич)의 말에 따르면, 1919년 10월에 당시로서는 많은 부수가 발간된 “기록관을 지키라”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레닌이었다. 왜냐하면 레닌은 작가들의 필사본과 서신들이 보관된 건물들 중의 한 곳에 숙영하고 있던 적군(赤軍)이 기록물을 소홀히 관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번은 정권 초기의 물자부족을 이유로 1919년 9월에 “자본주의 경제 및 구정부기관들의 공문서를 종이로 재활용하는 일에 관하여”라는 안이 인민위원회회의에 제기된 바 있었는데, 레닌은 이런 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sup>23)</sup>

레닌이 10월 혁명 전에 기록물의 보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러시아 연대기와 러시아 언어의 연구자이자 1917년까지 학술원 필사본실장으로 있던 샤흐마토프(A. A. Шахматов)와 그의 동료인 스투즈네프스키(B. И. Стрезневский)는 혁명 및 사회운동가들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레닌은 볼셰비키 당 위원회에다가 모든 비합법적인 출판물을 학술원 필사본실에 발송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자신도 두 번째 망명 때 외국에서 발행된 문헌을 그곳으로 보냈다. 그러므로 필사본실에는 비합법적인 볼셰비키 문헌의 폭넓은 폰드가 집중될 수 있었다. 레닌은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샤흐마토프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사라토프로 이송된 바

23 *Ibid.*, C. 11-12. 소련 초기에는 종이원료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결국 스탈린이 권력을 강화한 1920년대 후반에는 종이원료의 확보를 위하여 소위 “폐지수집운동”(макулатура)으로 알려져 있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인민위원부의 노동감독국 협의회가 1928년 11월 28일자 소련 노동국방소비에트의 결정에 근거하여 1928년 12월 20일에 “종이산업의 필요를 위하여 종이로 된 기록물 및 여타의 폐지를 각종 기관과 사업체로부터 징발하는 절차에 관하여”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결정에 따라, 모든 국가, 노동조합, 협동조합 및 사회 기관, 조직, 사업체, 그리고 기록물관리기관 및 기록관들도 마찬가지로 보존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료들을 종이공장의 원료로 보내기 위하여 신속하게 이관하여야 했다.

있는 학술원 도서관의 필사본 자료를 페트로그라드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자신이 이 일의 이행여부를 감독하기도 하였다.<sup>24)</sup>

이처럼 레닌이 주재한 상태로 1918년 4월 26일에 개최된 인민위원회 의는 소련의 기록관리 제도가 마련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회의에 뒤이어 기록학에 관심있는 학자들, 학술원의 연구원들 및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의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속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중 5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네프스키와 치체린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드디어 “기록 업무의 재조직과 중앙집중화에 관하여”(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라는 1918년 6월 1일의 법령의 최종안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법령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정부 기관의 모든 기록관들은 부서 기구로서는 폐지되며, 그런 기관들에 소장된 서류와 자료는 이제부터 단일국가 기록фон드를 구성하게 된다.

제2조 단일국가기록фон드의 운영은 기록관리총국에 위임된다.

제3조 1917년 10월 25일에 폐지된 정부 기관들의 모든 서류와 서신은 국가기록фон드의 일부가 된다. 기록관리총국이 각 부서와의 합의에 의하여 특별한 결정을 내릴 동안에, 일상 업무에서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은 서류들은 해당 부서에 계속 남아있게 되며, 기록관리총국의 권한이나 지시로 넘어오지 않게 된다.

제4조 정부 기관들의 모든 현용 서류와 서신문은 특별 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를 위하여 결정이 내려지는 시기 동안에 해당 기관에 남아있게 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모든 비현용 서류들은 국가기록фон드로 이관되어야 한다.

제5조 모든 정부기관은 기록관리총국의 문서로 된 허가가 없는 어떤

---

24 *Ibid.*, C. 12.

한 서류, 서신, 혹은 개별 자료를 폐기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이 사항을 어기는 사람들은 사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제6조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일차적인 권리는 정해진 서류를 생산한 부서에 부여되기 때문에, 기록관리총국은 즉각 국가기록펀드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제7조 보다 나은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그리고 보존상의 편의와 비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국가기록펀드의 개별 기록물들은 가능한 한 기록업무의 중앙집중원칙에 따라 통합·정리되어야 한다.

제8조 기록관리총국은 교육인민위원회 소속으로 그 안에서 특별한 부서가 된다.

제9조 기록관리총국의 장은 교육인민위원회의 인민위원회에 의하여 지명되며, 중앙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다. 기록관리총국의 장은 교육인민위원회 협의회의 위원이 되며, 중앙 정부의 기록관업무 행정을 대표하며 직접 보고할 권리도 가진다.

제10조 기록관리총국 및 그 관할 하에 있는 지방 기록관리부서에 관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제11조 현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러시아 내에서 기록관련 조직에 관한 이전의 모든 법령들과 결의 사항의 조항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1918년 6월 1일부터는 기록관의 유지를 위하여 개별 부서에 할당된 예산은 기록관리총국의 필요를 위하여 교육인민위원회의 지시 사항으로 양도된다.<sup>25)</sup>

이 법령은 인민위원회의 의장인 레닌과 인민위원회 서기였던 본취-브루에비취에 의하여 서명되어 공포되었다.

#### 4. 기록관리제도의 정비

---

25 P. A. Grimsted,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pp. 441-442.

### 1) 단일국가기록фон드 개념의 정립

1918년 6월 1일에 공포된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업무의 중앙 집중화와 재조직에 관하여”라는 법령<sup>26)</sup>은 소련 시기에 합리적인 기록 업무의 오랜 숙원인 개혁의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로 간주되어 왔다. 이 법령에서는 소련 시기, 그리고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의 기록물관리의 기본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일국가기록фон드(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ЕГАФ)라는 개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소련에서 국가기록물은 국가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sup>27)</sup> 6월 1일에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단일국가기록фон드를 결정하는 목적은 기록물에 대한 학문적 이용의 기회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소

---

26 이 법령은 소비에트 러시아와 다른 비러시아계 소련 공화국들에서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 공산국가들 사이에서 기록관리제도를 변모시킨 혁신적인 기록물 관리 과정의 첫걸음이었다. 그리하여 이 법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많은 정도로는 유고슬라비아의 기록 유산 및 행정 조치들을 재조직하기 위한 원칙과 모형으로 사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레닌이 서명한 이 법적 토대는 중국의 기록물 조직에 초석을 놓기도 하였다. P. A. Grimsted,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p. 433.

27 볼셰비키 혁명 이전인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미 중앙집중식 기록물 관리에 대하여 제안된 바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의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친 문헌 중의 하나는 제정 러시아의 법무부 기록관장을 맡았던 사모크바소프(Д. Я. Самоквасов)의 다음 저술이었다. Д. Я. Самоквасов, Проекты архивной реформы и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окончательных архивов в России(М, 1902). 제정 러시아 시기에 쓰여진 기록학 관련 논문으로는 19세기 후반부의 러시아 기록담당자였던 칼라초프의 다음 글도 있다. Н. В. Калачов, “Архивы, и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значение, состав и устройство,” Сборни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знаний 4(1877): 181-219. 칼라초프는 이 글에서 러시아의 발전 정도를 서유럽의 경우와 비교·개관하고, 러시아 제국에서 보다 포괄적인 기록물 기관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런 정부는 이후에 일군의 기록물들을 단일국가기록фон드에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가령, 1919년 3월 27일에 공포된 “해산된 혁명 이전 군대의 기록물과 문건에 관하여”, 1919년 3월 31일에 공포된 “주 기록 폰드에 관하여”, 1919년 7월 29일에 공포된 “작고한 러시아 작가들, 작곡가들, 미술가들, 학자들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의 사유 재산권 폐지에 관하여” 등이 바로 그러한 법령이었다. 이 중에서 1919년 7월 29일자로 공포된 법령에 따르자면, 사유 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술가들과 학자들의 사기록물(私記錄物)이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이관되도록 하고, 이러한 기록물의 출판권이 국가에 귀속되며 그 이용에 대해서도 국가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련 정부는 1919년 3월 31일에는 러시아사회주의연방의 “기록물의 보관과 폐기에 관하여”라는 법령을 통하여 단일국가기록фон드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해놓기도 하였다.<sup>28)</sup> 단일국가기록фон드에 대한 소련 초기의 이런 기록물 관리 방향은 1920년 대에도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소련 정부는 1923년 8월 2일의 법령으로 반정부 인사들의 기록물을 중앙기록관으로 집중시키는 일에 대하여, 1923년 9월 12일자의 법령으로는 제정 러시아 시기의 지배 가문인 로마노프 일가 및 몇몇 다른 인물들의 기록에 관하여 규정하였다.<sup>29)</sup>

28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75.

29 В. П. Козлов, Российское архивное дело архивно-источниковед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М.: Росспэн, 1999), С. 324. 1929년 1월 28일에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와 각료회의의 결정에 의하여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 내의 모든 기록관리기관은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중앙기록관리부(Цент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СФСР, 약칭 РСФСР ЦАУ РСФСР)에 소속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기구는 러시아사회주의공화국 내에서 기록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 및 여타 사회주의공화국들의 모든 국립중앙기록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후로는 단일국가기록фон드(ЕГАФ)가 국가기록фон드(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ГАФ)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결과 단일국가기록фон드는 정부의 기본 기록물을 넘어서, 모든 형태의 필사본 등 각종 기록 자료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1차 대전과 관계된 군(軍) 기록물, 지방정부 기록물,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된 작고한 과학 및 문화계 인물들의 종이 자료,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기록물도 국가에 의한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다. 또한 종교기관 기록물, 사업체 기록물, 보다 폭넓은 개인 기록물, 그리고 영화 및 사진 자료도 정부의 통제 범위에 들어오게 되었다.<sup>30)</sup>

그렇지만 소련 시기에 단일국가기록фон드라는 개념이 소련 내에 존재하던 모든 기록보존소들을 완벽하게 중앙집중식의 통제하에 둔 것은 아니었다. 사실 다수의 기록관과 필사본실들이 국가 기록관리 체제의 관할 범위 바깥에 있었다. 중앙의 통제범위 바깥에 있는 일부 기록물의 경우에는 새롭게 정리되고 연구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sup>31)</sup> 물론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은 제정 러시아 시대로부터 전수되어 온 기록물의 양이 단기간 내에 중앙집중식 관리를 통하여 정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소련 정부는 단일국가기록фон드 개념을 통하여 기록물의 중앙집중식 관리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록물의 수집만이 아니라 보존 및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소련에서는 이 개념이 1920년에 “국가적, 학문적, 개인적 필요성을 위하여 기록 자료의 이용 규칙들”에서 재확인되었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주요기록관리부의 기록물 관리의 보고에 따라 기록관에서 작업할 수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소련 정부에서 기록물의 이용이 무한정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볼셰비키 정부

30 P. A. Grimsted,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p. 431.

31 P. A. Grimsted, "Archives in the Soviet Union: Their Organization and the Problem of Access," *American Archivist*, vol. 34, no. 1(January 1971), p. 30.

는 기록물의 이용 및 지방과 중앙에서의 기록관리기구의 전문가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비공개로 하게 되는 기록물의 분류 작업을 위임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더구나 일당 지배체제가 강화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정보기관인 체카<sup>32)</sup>는 전국적인 규모로 소련 정부에 적대적인 행위 및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 있는 중앙기록관리기구와 그 부서의 책임자들의 발언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기도 하였다.<sup>33)</sup>

## 2) 중앙기록관리기구의 설치

1918년 6월 1일 법령에 의하여 제기된 단일국가기록폰드라는 개념은 소련 내에서 실질적으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 기구의 소속이 어떠한지 간에 이 법령에 의

32 “체카”란 볼셰비키 혁명 직후에 설치된 “반혁명 사보타주 및 투기단속 특별위원회”(Чрезвычайная комиссия по борьбе с контрреволюцией саботажем и спекуляцией)의 약자이다. 이 기구는 그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혁명에 반대하는 세력을 파악하여 억압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름이 바뀌고 권한이 재편되다가 1954에는 국가보안위원회(Комит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로 까지 이어졌다.

33 현재 러시아의 국가기록폰드는 “러시아연방기록폰드”(Архив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라고 불리고 있다. 이 폰드는 국가폰드와 비국가폰드로 구분되는데, 국가폰드는 러시아연방의 자산, 러시아연방주체의 자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국가폰드에는 사회단체 및 조직, 종교단체 및 조직의 소유물, 혹은 개인의 소유물인 기록폰드 및 기록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기록폰드의 양은 총 4억 6천만 문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에서 14개의 연방기록관에 집중적으로 소장되어 있는 3,900만여 문건이 가장 중요한 기록물로 간주되고 있다. 1억 2천 3백만여 문건은 201개소에 이르는 러시아연방주체의 국립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3억여 문건은 2,500개소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록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약 250만 문건은 러시아학술원 기록관 및 그 부속 학술기관의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박물관과 도서관 등지에도 7백만 문건 이상의 기록물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의 각종 기록관에서는 매년 평균 잡아 160만 문건 정도의 기록물이 “러시아연방기록폰드”로 편입되고 있다. <http://www.rusarchives.ru/branch/fond.shtml>(검색일자 2004. 5. 6)

하여 기록물 관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제 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하여 장기적인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적합한 공간과 설비,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볼셰비키 정권은 이 법령에 의하여 러시아소비에트연방 사회주의공화국의 교육인민위원회 산하에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рхивным делом при Наркомате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 약칭은 “구아드” 혹은 Главархив)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제 이 기구는 규정안의 저자들의 구상에 따라 기록물만이 아니라, 광범한 의미에서 “러시아 역사학”의 수호를 위한 전국가적인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담당한다고 선언되었다.

이 기구는 1921년 11월 26일에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인민위원회로부터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산하로 옮겨가게 되어 명칭도 “중앙기록관리국”(Управл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м архивом при ВЦИК РСФСР, 약칭은 “Центрархив”)으로 바뀌게 되었다. 소련의 중앙기록관리기구는 소련시기로부터 러시아 연방에 이르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 명칭과 소속이 변경되어 왔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록관리총국 및 그 후속기구들은 소련 및 러시아 연방에서 기록물 관리를 담당한 가장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그 활동은 아주 포괄적이었다. 이 기구는 소련 초기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전반적인 기록관련 업무에 대한 계획과 통제를 담당하였고,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의 국립기록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기록관리기구는 광범위한 기록물 출판에 담당하는 출판부서도 가지고 있다. 1920년대 초반부터 격월간지로 출판된 『소련 기록』(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 1923년부터 1941년까

지 부정기적으로 58호까지 발간된 『기록』 (Архивное Дело), 1959년부터 1965년까지 분기별로 발간된 『기록학의 문제들』 (Вопросы архивоведения) 등은 모두 소련의 중앙기록관리국 혹은 명칭이 바뀐 기관에서 간행된 기록물 전문 잡지였다.

또한 소련의 중앙기록관리기구는 소련 내의 기록물 기관의 모든 단계별 표준화 절차, 분류, 목록작업, 보관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나중에서 이 부서는 기록물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연구 및 정보 검색 시스템 분야에서의 자동화 연구도 실시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 모스크바 국립 역사-기록대학이 설치되자, 소련의 중앙기록관리부서는 여러 종류의 기록물 관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표 1>



|                     |   |
|---------------------|---|
| 1918~1922           | 기록관리총국(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교육인민위원회 산하 :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архивным делом при Наркомате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 약칭 Главарх) |
| 1922~1929           | 중앙기록관리국(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산하 : Управление Центральным архивом при ВЦИК РСФСР, 약칭 Центрархив)              |
| 1929~1938           |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중앙기록관리부(Цент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РСФСР, 약칭 ЦАУ РСФСР)   |
| 1929~1938           | 소련 중앙기록관리부(Цент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Союза ССР, 약칭 ЦАУ СССР)  |
| 1938~1948           | 소련 내무인민위원회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НКВД СССР, 약칭 ГАУ НКВД СССР)  |
| 1948~1960           | 소련 내무부 기록관리총국(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ВД СССР, 약칭 ГАУ МВД СССР)  |
| 1960~1991           | 기록관리총국(소련 각료회의 산하 : 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СССР, 약칭 Главархив СССР)                         |
| 1955~1990           | 기록관리총국(각료회의 산하 : Главное архи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약칭 ГАУ при СМ РСФСР)                               |
| 1990.11~1991.9      | 기록업무위원회(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각료회의 산하 :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архивов при Совете Министров РСФСР, 약칭 Роскомархив)               |
| 1991.9~1992.9       | 기록업무위원회(러시아 연방정부 산하 : Комитет по делам архивов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약칭 Роскомархив)                |
| 1992.9.30~1996.8.15 | 러시아국립기록청(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архив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약칭 Росархив)   |
| 1996.8.15~2004.3.9  | 러시아연방기록청(Федеральная архивная служба России, 약칭 Росархив)   |
| 2004.3.9~           | 러시아연방기록국(Федеральное архивное агентство России)   |

※ <http://www.rusarchives.ru/branch/rosarchive/history.shtml>(검색일자 2004.5.6)

## 5. 권력의 강화에 따른 기록관리제도의 변화

### 1) 기록관리지도부의 교체

1918년 6월 1일의 법령이 신생 소련의 기록물관리제도의 기반을 놓았던 점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일은 소련에서의 불세비키의 독재 권력의 강화라는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국가가 기록물을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국가 권력에 의한 기록물관리기구의 장악 가능성 및 그곳에 소장된 기록물의 독점의 가능성도 열리게 되었다. 불세비

키 정부는 초기에는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의 학자들을 참여시킨 채 기록물 이용정책을 수립했으나, 점차적으로 이들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볼셰비키 당국과 기록관리 업무에 참여한 학자들 사이에 조성된 갈등 관계에 대한 예는 아주 많았는데,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권력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 현실과 학문적 진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갈등이 발생된 초기의 예를 역사가이자 사회평론가로 활약했던 멜구노프(С. П. Мельгунов, 1879~1956)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월 혁명 직후인 1917년 3월 22일에 임시정부는 “모스크바시 정치자료연구위원회”(Комиссия по разработке политических дел Москвы)를 구성한 바 있는데, 그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멜구노프였다. 그는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혁명 이전 제정 정부의 극비 문서들을 이용하면서 호딘카 사건<sup>34)</sup>과 1905년 관련 기록 등 제정 러시아 시기에는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을 출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의 출판 계획은 1918년에 출간되어 나온 『러시아의 사회운동 및 혁명운동사 자료』 제1권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볼셰비키 : 1903년부터 1916년까지 볼셰비즘 역사에 관한 구 모스크바 보안부서 자료”라는 이 자료집의 부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sup>35)</sup> 볼셰비키는 혁명 이전의 제정 정부의 보안부서에 소장된 기록물 중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 중에는 볼셰비키가 독일과 뒷거래했던 사실이나 어려웠던 당 재정 때문에 저질렀던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가 담겨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였다.

34 이 사건은 1896년 5월에 모스크바 인근에서 개최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 축제행사 때 많은 인파가 서로 밀치고 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한 참사를 말한다.

35 “Мельгунов Сергей Петрович,” *Историки России Биографии*(М.: Росспэн, 2001), С. 583-584.

그러므로 교육인민위원회 부위원(副委員)으로 있던 포크로프스키는 1918년 7월에 이 위원회를 해산시키고, 그곳에 있던 모든 자료들을 모스크바주 인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정치기록부로 이관하고 말했다. 콩교롭게도 벨구노프는 1922년 10월에 서유럽으로 망명길을 떠나게 되었고, 나중에 “러시아자유투쟁동맹” 등의 조직을 이끌다가 프랑스에서 사망하였다.

나아가 기록물관리기구가 국가에 의하여 통제됨으로써 기록물과 관련된 학문적인 발언의 자유도 점차로 축소되게 되었다. 소련 초기에 기록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 이들 중에 페트로그라드에서 활약한 마야코프스키(И. Л. Маяковский)와 타를레(E. В. Тарле) 등은 당국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다. 마야코프스키는 러시아에서 기록물 제도의 개혁이 처음으로 논의된 것이 칼라초프(Н. В. Калачов)와 사모크바소프(Д. Я. Самоквасов) 등에서 유래되었다는 견해를 강의에서 표명하였는데, 볼셰비키의 권력 기반이 확고해지자 그는 이런 관점을 공개적으로 철회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또한 프랑스사 전공자인 타를레는 1918년과 1919년에 발표한 “프랑스대혁명 시기에 혁명재판소 : 당대인들의 회상 및 문서들”라는 글에서 프랑스 혁명기에 자행된 자코뱅의 유혈 테러와 10월 혁명 직후의 적색 테러를 비교함으로써 소련 당국의 심기를 거스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련 정부측에서 1918년 6월 1일자 법령의 제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으며 이후에 기록관리기구를 담당하였던 라자노프도 점차로 권력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기록관이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코 정치적 이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의 이용을 위하여 아무런 제약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sup>36)</sup> 그는 “나는 볼셰비크도 아니고,

36 T.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225.

레닌주의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마르크스주의자이며, 마르크스주의자로서 공산주의자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권력과 타협하기 어려운 성격의 인물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나중에 마르크스-엔겔스대학의 학장직에서도 면직되고 당에서도 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1930년대 후반부의 대숙청 기간 중에 처형당하고 말았다. 또한 기록학 분야에서 제기된 그의 주장은 트로츠키주의라는 당대 최악의 오명을 덮어쓰고 말았다.<sup>37)</sup>

1918년 여름으로부터 내전이 종식되어 가고 있었던 1920년 말 무렵이면 소위 “전시 공산주의”(War Communism)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 이후에는 극단적인 국유화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경제정책(新經濟政策)이 채택되어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분적이거나 자유화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하였지만, 기록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세비키의 지배가 강화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1920년 9월부터 1928년까지의 기간에는 소련 기록관리 지도부의 대폭적인 교체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기록관리총국의 지도부는 대부분 경질되었고, 이 기구는 불세비키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되었다. 소련의 공식적인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으로부터 계급적으로 이질적이고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인원들에게 그 활동을 의지하고 있던 1918~20년의 기회주의적 기록업무 지도부를 이제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은 소련에서 1980년대 말까지 지배적인 입장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총국의 지도부 교체, 그리고 그에 뒤이은 지방에서의 간부 교체는 우리 관점에서 보자면, 부분적으로 1920년대에 시작된 모든 분야에서의 당 권력 강화의 전반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 이 십 년 정도의 기간은 기록간부진의 불세비키화와 기록관의 국가화라는 기치아

---

37 *Ibid.*

래 기록물관리기구가 재편되는 시기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1918년 6월 1일 법령에서 제시된 기록물의 조직 및 이용이라는 민주적인 원칙들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흐름은 1920년 8월 23일에 라자노프가 모스크바를 떠나고, 기록관리총국의 지도부가 교체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1921년 1월에 이 기구의 지도부는 다시 개편되어 포크로프스키(М. Н. Покровский)<sup>38)</sup>, 아도라트스키(В. В. Адоратский)<sup>39)</sup>, 바투린(Н. Н. Батулин)이 소련의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이 불셰비키 3인방은 중앙과 지방에서 기록 체제의 광범한 재조직 프로그

38 포크로프스키(1868~1932)는 원래 19세기 말부터 모스크바대학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쌓은 다음, 다섯 권짜리 『고대로부터의 러시아사』를 출간할 정도로 역사가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었다. 그는 소위 “상업화 이론”으로 알려진 러시아사 역사해석으로 유명하였다. 포크로프스키 역사학이 스탈린 시대에 어떠한 위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줄고를 참고하라. 조호연, “스탈린 시대의 역사학,”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인문논총』, 제14집(2001), pp. 181-197. 포크로프스키의 이런 역사적 관점에 대해 코브린(В. Кобрин)은 “포크로프스키는 자신의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및 사료에서 이미 자신에게 성립된 개념을 확인해주는 사실들을 찾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즉, 역사가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종이며, 그로 인하여 학자이기를 중단하기 위한 길이 열려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В. Кобрин, Кому ты опасаешся, историк?(М.: Московский рабочий, 1992), С.142.

39 아도라트스키(1878~1945)는 1904년부터 불셰비키 당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서, 1918년 8월에 망명지에서 귀국하였다. 그는 짧은 시기 동안 “신로마노프 기록관”(니콜라이 2세 및 그의 가족 문서 폰드)을 책임진 후에 요양을 위해 카잔으로 이주하였다. 거기서 그는 레닌과의 서신교환을 통하여 불셰비키 당 및 10월 혁명의 역사에 관한 자료 수집을 당의 통제하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레닌은 1920년 8월에 그를 카잔에서 모스크바로 불러,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런 자료들의 수집 업무를 총괄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와 아울러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편지 모음집을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하는 일의 준비를 위임하였다.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아도라트스키는 제정 러시아 시기의 기록전문가들을 무시하였고, 혁명 이전의 기록관에서 행하는 그들의 연구 작업이 새로운 당의 학문적 관점에서 불필요하며 무익하다고까지 주장하였다.

램의 실현에 착수할 수 있었다. 포크로프스키를 필두로 한 기록관리총국의 지도부는 기록물관리부서 및 기구에서 “우리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축출하고, 그 자리를 “우리 사람”으로 교체하였다.

기록관리총국의 지도부가 교체됨과 더불어 1918년 법령에서 토대를 갖춘 기록물의 중앙집중식 관리의 원칙도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앞서 설명된 바 있듯이, 이 원칙은 원래 학문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관별 통제로부터 기록물을 해방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법령에 반영된 바 있었다. 그런데 볼셰비키가 권력을 강화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학문적인 이익이 국가적인 이익으로 대체되었고, 1920년대 이후에는 국가적인 이익이 당의 이익과 거의 전적으로 동일시되고 있었다. 지도부의 교체와 더불어, 기록관리를 담당한 실무자들의 대규모 인적 교체도 추진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1930년대 중반에 본격화된 전(全) 분야의 숙청의 전조를 기록관리 분야에서 이미 1920년대 초에 찾아볼 수 있었다. 기록학계의 인적 교체의 강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 플라토노프와 프레스냐코프도 1923년 5월에 사직서를 내고 마침내 축출될 정도였다. 이런 숙청 작업은 1923년 무렵에 완성된 듯이 보인다. 그리하여 당시에 기록관리 분야에 종사하던 막사코프(B. B. Максaков)는 1923년 8월에 거둬 페트로그라드 분소를 방문하여 작성한 정기 보고서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공산주의적”이 되었으며, 이제로부터 기록관의 전반적인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같은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재편된 기록관리총국의 방침에 따라 단일국가기록фон드가 조직될 수 있었다. 이제 국가기록관은 네 개의 부분으로 분류되었다. 고대로부터 18세기까지의 러시아의 대외, 대내 정치에 관한 모든 기록물이 포함된 고대기록 분야가 그 중 첫 번째이고, 19세기로부터 1917년 2월 혁명까지의 근대 러시아사

기록관리 분야가 그 두 번째이며, 1917년 3월 1일까지의 혁명사 및 사회운동 자료 보관소가 세 번째 분야이며, 마지막으로 1917년 3월 1일 이후의 자료를 담은 10월 혁명 기록관이 바로 그 네 번째 부서였다.

1920년대 이후로 소련에서는 기록관리 업무가 보다 노골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 원인은 단지 볼셰비키가 인류사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재평가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측면도 개재되어 있었다. 사실, 1920년대 초에 건강이 악화된 레닌이 종종 의식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자, 당내 지도부에서 점차로 치열해지던 권력 투쟁과 관련하여 기록물이 중요한 정치적 무기가 되어 갔다. 따라서 계급적인 적들과 세계 자본주의에 대항해서만이 아니라, 내부의 당내 투쟁에서도 기록물이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서기국을 중심으로 당의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스탈린과 그의 측근은 당의 지난날과 관계된 모든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던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는 1920년대 이후로 소련 당국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서 기록 자료를 이용하는 예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레닌이 1917년 10월 18일에 “혁명의 과업 배반 행위에 관하여”라는 편지를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에게 보낸 적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은 1917년 10월에 레닌이 구상하던 볼셰비키 혁명의 거사 계획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 주장함으로써 평생 동안의 볼셰비키 활동에서 중대한 정치적 오판을 한 바 있었다.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10월 혁명 10주년을 맞이한 1927년 11월 1일에 레닌의 바로 이 편지가 당 기관지였던 『프라브다』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스탈린이 기록물을 공개함으로써 트로츠키와 함께 스탈린에 대항하고 있던

카메네프와 지노비예프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하고자 했음은 불문가지의 사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 관리의 정치적인 의미를 확실히 파악한 볼셰비키는 당과 관련된 기록물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미 1921년 12월에 당사편찬위원회를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두었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중앙위원회 비서실의 구성원이 되어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특권과 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중앙위원회의 당사편찬위원회는 중앙기록관리국에 형식적으로 소속된 편제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이미 1924년 3월에 자체로 “당-역사문서” 보관소의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 달에는 당사편찬위원회가 독자적인 기록관을 창설하기에 이르렀다.

기록물 관리기구들이 소련 당국의 통제하에 들어감에 따라, 1920년대 중반부터 합동국가보안부의 기관들은 아키비스트들의 전문 활동에 직접 간섭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간섭은 보다 위협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합동국가보안부의 비밀 부서는 독자적으로 모스크바의 10월 혁명기록관과 레닌그라드의 중앙역사기록관의 활동을 감시하였다. 그러므로 1918년 6월 1일 법령에 규정된 기록물 이용 규정은 더욱 변경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4년에 규정된 “단일국가기록фон드 기록물 자료의 이용규정”이 1926년에 수정 발간되었는데, 그 안에는 비밀 기록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1921년 11월 26일에 기록 간부의 적극적인 경질이 시작됨과 동시에 기록 건설 분야에서 포크로프스키의 마지막 근본적인 구상이 구현되었다. 이 날짜로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의 간부회는 기록관리총국을 교육인민위원부로부터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의 관할로 넘기는 결정을 내렸고, 그 다음에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의 중앙 기록관

에 관하여”라는 법이 비준되었다. 이에 따르자면, 단일국가기록фон드의 구성 속에 “기록관에 소재하는 모든 기록 자료만이 아니라, 그런 곳에 없더라도 중앙기록관에 등록된 모든 기록물들이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중앙기록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전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ВЦИК) 관할 하에 있는” 공화국의 모든 기록물 관리기관의 총체라고 정의되었다. 중앙기록관의 관리는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 공화국의 중앙기록관리부와 중앙기록관의 주 지부들에 맡겨졌다. 나아가 중앙기록관리부에는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의 고위 국가 기관들의 모든 기록관이 소속되었다. 그리하여 이전의 수많은 부서 구분 대신에 법 부문, 경제 부문, 역사-문화 부문, 육군-해군 부문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 2) 기록학 이론의 발전

소련 당국에 의한 기록물 관리 기구의 통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아키비스트로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은 기록학의 이론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은 1920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제1회 페트로그라드 기록종사자대회에서 표현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크냐제프(Г. А. Князев)의 “기록 용어에 관하여”, 마카로프(А. И. Макаров)의 “최근의 기록관련입법”, 그리고 니콜라예프(А. С. Николаев)의 “기록관 일꾼들의 준비” 등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포크로프스키 등을 통하여 볼셰비키가 기록관리기구의 지도부를 장악한 이후에도 기록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연이어 개최되었다. 1921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기간에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회 전(全)러시아 기록종사자협의회도 그런 학술행사 중의 하나였다. 이 협의회에서 주목을 받은 발표는 아도라트스키의 논문이었다. 그의 논문은 1920년 9월 26일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10월혁명사 및 러시아공

산당사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위원회(“Комиссия для сбора и изучения материалов по истории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의 조직과 작업에 대한 것이었다. 이 대회에 참석자들은 이러한 공지사항 이외에도 기록관리에 관한 전문적 문제들도 논의하였다. 특히 발표자들 가운데서 페트로그라드 기록학파가 맹활약하였는데, 마야코프스키(И. Л. Маяковский)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개념의 경계에 관하여”, 안드레예프(А. И. Андреев)는 “기록 용어에 대한 페트로그라드 아키비스트들의 작업”, 블리노프(И. А. Блинов)는 “19세기의 목록과 기술(記述)에 관하여”, 안닌스키(С. А. Аннинский)는 “기록 업무의 홍보에 관하여”, 네차예프(В. Н. Нецаев)는 “기록박물관에 관하여”, 체레프닌(Н. П. Черепнин)은 “기록 자료의 전시회 조직의 원칙”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 모스크바의 학자들 중에서 고치예(Ю. В. Готье)는 “사학사의 발전과 연관된 역사학의 움직임”, 류바프스키(М. К. Любавский)는 “기록 근무자들의 준비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페트로그라드에 기록-고문헌학대학의 창립하자는 니콜라예프(А. С. Николаев)의 제안을 모스크바와 관련하여 보충하였다.<sup>40)</sup> 그리고 이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사진 자료 및 영화 필름을 위한 특별 보관소 창설의 불가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41)</sup> 그렇지만 볼셰비키 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기록학과 관련된 이런 학문적인 자유는 점차로 제한받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5년 3월에 제1회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기록종사자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의 특이한 점으로는 “기록 폰드”(архивный фонд)라는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원래 보존기록

40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118-123.

41 В. В. Максаков, История и организац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1917~1945 гг., pp.128-133.

물과 기록 폰드에 대한 학문적인 구분 작업은 1920년대 초에 기록관리 총국의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던 클레인(В. К. Клейн)에 의하여 제안된 바 있었다. 그를 이어 안드레예프(А. И. Андреев), 가바예프(Г. С. Габеев), 푸지노(И. В. Пузино), 크냐제프(Г. А. Князев) 등 페트로그라드 기록학과의 대표적 인물들, 그리고 안필로프(Б. И. Анфилов), 골루브초프(И. А. Голубцов), 보고야블렌스키(С. К. Богоявленский)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스크바 용어 위원회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기록 폰드에 대한 개념 정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기본적인 등록 단위에 대한 확고하고도 공히 받아들여지는 개념 작업이 없이는 중앙과 지방의 다량의 기록물의 통계적인 연구 작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는 아주 중요하였다.

1925년의 대회에서는 폰드 개념을 둘러싸고 크냐제프와 안드레예프 등의 페트로그라드 기록학과 학자들과 안필로프 등의 모스크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전개되었다. 안필로프의 폰드 개념은 아프토크라토프의 평가에 의하면, 그와 동시대 서구 학자인 젠킨슨(H. Jenkinson)과 푸르니예(П. А. Фурнье)의 것보다 수준이 높았다. "모스크바 공식"이라고 불리는 안필로프의 개념은 폰드 생성의 자연과학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본성은 세계의 기록학계에서는 출처의 원리로 알려져 있는데, 그에 근거한 기록물 관리 원칙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기록물 폰드에 따라 서류를 분류하는 학문적인 분류법이 되었다. 안필로프는 골루브초프와 세르게예프가 가담한 모스크바 용어위원회의 이름으로 "기관과 개인의 기록 폰드란 이 기관이나 개인의 활동 과정 중에 유기적으로 축적된 기록 자료의 총체다."라고 정의하였다. 나중에 크냐제프와 보고야블렌스키 등 소련의 많은 기록전문가들은 이 정의를 논박하고 발전시켰다. 이런 시도들은 기록물의 소재(所在)에 근거를 둔 수집물

(collection)이라는 개념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기록관리 분야의 개념 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발전은 1920년대 중반의 소련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정의가 아주 현실적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리하여 중앙기록관리국의 협의회는 이러한 개념규정에 근거하여, 즉각 과별(課別)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부서별 전체, 그리고 심지어 개별 기관들의 범위에서 기록 폰드를 지나치게 세분하는 작업을 중단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 결정을 채택할 수 있었다.<sup>42)</sup>

1927년 1월에는 개최된 제2차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기록종사자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전에 개최된 기록관련 인사들의 모임에서는 기록종사자(архивный деятель)라는 호칭이 사용되었으나 이제 기록일꾼(архивный работник)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이미 순수한 학문적인 논쟁이나 자유로운 토론이나 대비되는 입장의 명확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1920년대에도 기록학적 주제를 두고 개최된 일련의 학술행사가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후반에 접어들수록 기록 전문가들과 권력의 평화적인 공존이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10월혁명사 및 러시아공산당사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위원회"(Комиссия для сбора и изучения материалов по истории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가 새로운 십 년 동안 소련의 모든 기록 건설의 지도의 전권을 부여받았다. 또한 당 기관의 모든 지시 사항들은 소련 중앙집행위원회 간부회 산하에 있던 특별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바 소련 중앙기록관리부의 새로운 설치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결정이 내려진 회의에는 처음으로 합동보안부의 의장이 포함되었다.<sup>43)</sup> 이렇게 하여 1920년대에 소련의 기록전문가들은 서서히 권력의 통제하에 들어가

42 Т.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133-135.

43 *Ibid.*, С. 138-139.

게 되었던 것이다.<sup>44)</sup>

여기서 우리는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록전문요원의 교육 및 양성 제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sup>45)</sup> 혁명 후에 소련의 전문가들은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록학과 관련된 기본개념들에 대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한 때 기록전문가의 교육은 학문적인 성격이 강한 페트로그라드의 고문헌대학(ИАИ)에서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기록관리기구가 재편되고 지도부의 인적 구성이 교체되던 1922년 1월부터 이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지급이 중단되었고, 급기야 그 해에 이 대학은 폐교되고 말았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1922년 6월 17일에는 페트로그라드고문헌대학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모스크바 고문헌대학도 폐교되었다. 모스크바고문헌대학과 페트로그라드고문헌대학의 운명에 20년대의 공통된 비극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비극은 두 가지 원칙의 충돌, 즉 창조적인 전문성의 원칙과 계급적인 원칙 사이의 충돌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44 소련의 기록관리제도가 스탈린 체제에 점차로 편입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줄고를 참조하라. 조호연, “소련 기록관리제도의 변천-1920년대와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춘계학술발표집』 (한국기록관리학회, 2004), 121-136쪽.

45 기록학에 관한 교육은 1877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고고학대학에서 시작되었는데, 아키비스트들을 위한 대학 차원의 훈련 프로그램은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1918년에 재정비되었다. 모스크바의 경우도 이미 1907년에 모스크바 고고학 대학에서 1907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에 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강좌 중 일부는 1920년에 출판되어 지도적인 역사가들과 아키비스트들이 그 당시에 진행 중인 기록 업무에 대한 생각, 계획, 절차에 대한 상당한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역사가인 니콜라예프(A. S. Nikolaev)는 페트로그라드의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기록관리총국에서 1919년에 편집되어 간행된 전문적인 기록학 잡지의 창간호 출판에 관여하였다. P. A. Grimsted,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The Bolshevik Legacy for Sovie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p. 436.

소련에서 다시 기록전문가 양성에 대한 논의가 일게 된 것은 스탈린의 권력이 확고해진 1920년대 후반이었다. 이 시기에는 과거에 전(全)러시아중앙집행위원회 산하에 있던 중앙기록관리국이 1929년에 러시아 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 중앙기록관리부로 재편된 때이기도 할 정도로 기록관리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또한 스탈린의 통치 방침에 따라 기록 업무의 역사와 기록학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자격 있는 기록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도 기록전문가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유였다. 그리하여 1930년 9월 3일자로 소련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회의는 2년제의 분과과정, 그리고 7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노동자들과 노동자 자제들을 위한 1년의 예비과정으로 된 역사-기록학대학(Историко-архивный институт)을 설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교육기관의 초기에는 적지 않은 난관도 있었다. 정부당국이 노동자들과 집단농장원들을 입학시키라는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록관리 분야와 역사 및 사회과학 분야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도 쉽지 않았고, 교과서와 교육 내용이 정부의 엄격한 검열 대상이었다는 점도 고민거리였다. 그렇지만 1930년대 말 무렵이 되면 역사-기록학대학은 4년제 기록전문가 양성기관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sup>46)</sup>

### 3) 혁명관련 기록관리

우리는 소련 초기의 기록물 관리제도를 다루면서 혁명사와 관련된

46 T. Хорхордина,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 гг., С. 223-225. 현재의 역사기록학대학의 구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에 제시된 문헌 자료와 인터넷 자료를 참조하라. В. П. Козлов, “Историко-Архивный институт: хроника развала и точка бифуркации,” Вестник архивиста, No. 1(73)(2003), pp. 59-95; <http://iai.rsuh.ru/info/index.shtml>, (검색일자 2004. 2. 3)

기록물을 관리하던 대표적인 기록관의 설치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 초기에 10월 혁명 이후에 혁명운동사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보관 업무는 “혁명 및 대외정책기록관”(Архив революци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10월 혁명 기록관”(Архив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약칭 АОР)과 같은 새로운 국립기록물 관리기관들, 그리고 그 자체 기록관을 가진 국가 혹은 공산당에 소속된 학술 및 주요 연구기관들이 담당하였다. 학술 및 연구기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은 “10월혁명사 및 러시아공산당사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위원회”(Комиссия для сбора и изучения материалов по истории Октябрьской революции 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й партии)였다. 이 위원회는 1920년 9월부터 교육인민위원부 산하에, 그리고 1921년 9월부터 1928년까지는 전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소련 초기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을 수집, 연구하였다. 이 기관은 주요 당직자들이 오랜 망명생활을 한 탓에 외국에 남아있던 당 기록자료 및 도서자료, 그리고 레닌의 개인 기록을 소련으로 반환하는 작업과 10월 혁명에 직접 참여한 볼셰비키의 회상록의 수집 작업에서 많은 활약을 했다. 이 위원회는 초기에는 10월 혁명 기록관에 자료를 보관하다가 1924년부터는 자체의 기록관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1920년대 말에는 6만 건 이상의 각종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1년 6월에 사회주의학술원에서 분리되어 소련중앙집행위원회 산하기구가 된 마르크스·엔겔스연구소(1921~1931)와 1923년 9월에 전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산하의 레닌연구소(1923~1931)도 혁명운동사와 관련된 기록관리를 담당한 기관들이었다.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인 토대 창설을 1차적인 과제로 삼았던 마르크스·엔겔스연구소는 1920년대 말 무렵까지는 마르크스의 후손들로부터 수집한 마

르크스의 필사자료, 독일 사회당사 관련 자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부의 프랑스혁명사 자료 등 17만 5천 건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게 되었다. 또한 레닌의 필사본 보관소로 출발한 레닌연구소에는 레닌 기록물이 집중되었다. 우선 그 안에는 1923년 3월에 레닌의 아내인 크루프스카야(Н. К. Крупская)에 의하여 이관된 레닌의 필사본 및 편지들이 소장되었다.<sup>47)</sup>

"10월혁명사 및 러시아공산당사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위원회"는 1928년 8월에 레닌연구소에 통합되었고, 다음 해에는 이곳에 소장된 자료가 기반이 되어 중앙당기록관(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 약칭은 ЦПА)이 설치, 준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31년에는 마르크스·엔겔스 연구소와 레닌 연구소가 전러시아공산당(볼셰비키) 중앙위원회 산하 마르크스·엔겔스·레닌연구소(ИМЭЛ)라는 단일 연구소로 통합되었고, 중앙당기록관은 그 하위 조직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에 중앙당기록관은 앞서 존재했던 기관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통합 운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료의 수집 및 이용도 관장하게 되었다. 중앙당기록관을 중심으로 하여 마르크스, 엔겔스, 레닌의 생애와 활동, 서유럽과 러시아와 소련의 정치사, 러시아 공산당 및 국제노동운동을 반영해주는 포괄적인 자료의 구성 작업 및 보충 작업은 국내와 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수집 활동 덕분에 계속되었다.

물론 마르크스·엔겔스·레닌연구소(ИМЭЛ)의 중앙당기록관이 주도한 기록물 수집 작업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35년에 이

---

47 "10월혁명사 및 러시아공산당사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위원회"의 지도부에는 유명한 볼셰비키-평론가-역사가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었다. 마르크스·엔겔스연구소의 상임소장은 마르크스주의자 역사가이자 학술원회원인 라자노프(Д. Б. Рязанов)였고, 레닌연구소의 초대 소장은 러시아공산당(볼)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인 카메네프(Л. Б. Каменев)였다.

기관은 독일 사회민주당의 모든 기록물과 함께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파시스트들에 의하여 장악되지 않고 보호되어 프랑스와 덴마크로 이송된 마르크스와 엥겔스 기록을 모스크바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사회주의노동인터내셔널과 독일사회민주당 지도부와 협상을 벌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소련 당국은 당시에 이념적인 상극관계에 있던 독일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협상을 진행하던 마르크스·엥겔스·레닌연구소(ИМЭЛ)의 소장인 아도라트스키, 중앙당사기록관장인 티호미르노프(Г. А. Тихомирнов), 부하린(Н. И. Бухарин) 등은 협상을 중단하고 모스크바로 철수하고 말았다.

1930년대, 특히 1930년대 후반에는 스탈린에 의한 숙청으로 인하여 개인 및 가족 기록, 도서관의 기록 등의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가택이 수색되고, 가산이 몰수되는 와중에 러시아 혁명운동, 정치적 망명자들 등의 많은 문서 기록 및 도서 수집물이 소실되었다. 그리고 1941년 6월에 발발한 독소전도 개인과 가족 기록물, 도서, 사진 수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앙당사기록관으로 이관된 문서는 완전히 보관되었다. 소련 정부는 독일의 침입으로 모스크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1941년 여름에 중앙당사기록관의 자료들을 우파(Уфа)로 철수시켰다가 승리를 목전에 둔 1944년에야 자료를 모스크바로 원위치 시켰다. 그 이후에도 중앙당기록관은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록물의 수집 및 이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만 기록관의 명칭은 여러 차례 바뀐 적이 있다. 마르크스·엥겔스·레닌연구소(ИМЭЛ)가 스탈린 사후에는 한 때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연구소(ИМЭЛС)연구소로 바뀐에 따라 덩달아 중앙당기록관의 정식 명칭도 그에 준하여 변경되었고, 스탈린 비판이 제기된 1956년부터 소

련이 해체된 1991년까지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연구소 중앙당기록관”(Центральный партийный архив Института марксизма-ленинизма при Центральном Комитете КПСС)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1991년 8월에 발생한 보수파의 쿠데타 기도가 좌절된 이후에 “러시아근대사자료보관 및 연구센터”(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 약칭 РЦХИ ДНИИ)라고 또 한번 기관명을 바꾸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sup>48)</sup>

## 6.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성립된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 제도의 성립과정과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보건데, 소련 초의 기록관리제도는 제정 러시아 시기로부터 진행되어온 기록관리제도의 준비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 2월 혁명 직후의 혼란기 동안에 기록관리에 중심에 선 인물들은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기록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거나 기록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학자들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가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이었는데, 이들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러시아에서 기록물의 훼손의 정도가 최소화될 수 있었다.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은 10월 혁명 이후 성립된 볼셰비키 정권 하에서도 소련 초기의 기록관리제도의 준비과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의 초석을 놓았던 1918년 6월 1일의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에 있는 기록업무

48 이 기록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Краткий Путеводитель по Российский Центр Хранения и Изуч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и(М.: Благовест, 1993).

의 재조직 및 중앙집중화에 관하여”라는 법령이 마련되는 배경에도 볼셰비키 정부와 협력하여 기록관리중앙위원회를 구성한 러시아기록종사자동맹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볼셰비키 역시 혁명운동을 하던 시기부터 기록물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의 성립에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물론 10월 혁명 직후에 한 때 기록물 관리업무의 혼란상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인물들이 기록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10월 혁명으로부터 불과 반 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준비 작업이 실권자인 레닌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을 볼 때, 볼셰비키 정권도 소련 기록관리제도의 성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볼셰비키 정권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더라도 의미를 지닌 기록관리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성립된 소련 초기의 기록물 관리의 핵심은 기록물의 중앙집중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이론적인 바탕으로는 “단일국가기록фон드”(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ЕГАФ)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법령이 1920년대에도 꾸준히 공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개념은 1920년대 후반에 국가기록фон드(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ный фонд : ГАФ)라고 불리다가, 소련이 해체된 오늘날에는 러시아연방기록фон드(Архив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기록물 관리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불리고 있다. 이런 중앙집중화된 기록물 관리 개념은 기록물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지닌 중앙관리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낳게 되었는데, 처음으로는 교육인민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록관리총국이 바로 그것이었다. 본문의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 기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편되거나 명칭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근에

“러시아연방기록국”으로 개편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러시아 연방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소련의 기록관리제도는 1920년대 들어 몇 가지 변화를 경험했다는 점도 우리의 주목을 끌 만하다. 우선 1918년 6월 1일의 법령을 준비하는 데 중심역할을 담당했던 라자노프가 포크로프스키에 의하여 대체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록물 관리 분야의 중심인물들이 정권에 보다 순응하는 인물들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이 제거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중반까지는 기록전문가들이 기록학의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크나제프 등의 페트로그라드의 기록학자들과 안필로프 등의 모스크바의 기록학자들 사이에서 폰드 개념을 둘러싸고 벌인 논의는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이 시기의 소련에는 많은 수의 신설 기록관이 설립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그 중에서도 혁명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으로는 “혁명 및 대외정책기록관”, “10월 혁명 기록관” 등이 있었는데, 이들 기록관들은 중앙당기록관으로 통합되었다가 오늘날에는 “러시아근대사자료보관 및 연구센터”라는 명칭으로 20세기 소련사의 중요한 자료를 소장한 대표적인 러시아 기록관 중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2,700개소 이상의 각종 기록관에 4억 6천 만 문건 이상의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러시아기록관의 현주소가 소련 초기의 기록물관리제도가 법적, 제도적, 이론적, 조직적 뒷받침을 통하여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생겨난 소련의 기록관리제도는 당대의 어느 나라에 비교해보더라도 수집, 보존 그리고 이용 등의 측면에서 더욱 강력한 중앙집중식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1999년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공포한 다음에 본격적

으로 시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Organization of the Archival Systems and Their Transformations in the first period of the Soviet Union  
An Essay for Reconstruction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Government-General of Chosun

Cho Ho-Yeon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archival systems in the Soviet Union from 1917 to the 1920's. The Russian revolution was the turning point not only for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s but for the archival administration in Russia, as it provided the new Soviet regime with the chances to reorganize the archival institutions under Bolshevik rule.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e fact that the Russian Archival Workers' Union had taken part in the organization of the archival systems together with the Bolshevik revolutionaries.

The Soviet government intended to transform the decentralized and poorly organized archival systems in the prerevolutionary years into the centralized and

bureaucratized ones. In this meaning, the decree signed by V. I. Lenin on 1 June 1918 was estimated as the real basis for the Soviet archival centralization. Lenin's archival decree of 1918 encompassed the entire national documentary legacy, which was gradually extended to all types and categories of manuscripts and archival records by successive legislation. The concept of state proprietorship of all documentary records was designated "Single State Archival Fond"(Edinyi Gosudarstvennyi arkhivnyi fond), which was renamed as "Archival Fond of the Russian Federation" after the collapse of the USSR. The independent state administrative agency, that is, "Main Administration of Archival Affairs"(Glavnoe upravlenie arkhivnym delom) was charged with the management of the entire "Single State Archival Fond".

While the Soviet Union reorganized its archival systems in the twenties, the archival institutions became under the severe control of the government. For example, M. N. Pokrovskii, the well-known Marxist historian and the political leader, headed the organizational work of archives in the Soviet Union, which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the prerevolutionary specialists from the archival field in the Soviet Union. However, the discussions over the concept of "the Archival Fond" by B. I. Anfilov helped to develop the archival theories in the USSR in the twenties. In conclusion, the Soviet Union, having emphasized the centralization of the archives, developed its archival systems from the early period, which were the basis of the systematic archival institutions in Russia.